

[대선 특집]



“민주화 이룬 호남인들 이젠 발전 위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광주일보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과 비전, 시대정신, 그리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 공약을 살펴보기 위한 연속 인터뷰를 진행중이다. 첫 순서는 현재 50%대의 고공지지를 기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신항락 광주일보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보간의 인터뷰는 21일 오후 광주공화 귀빈실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던 이 후보는 이날 호남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면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입태희·정병국 의원과 박형준 대변인이 배석했다.

— 강령군 중일텐데 건강이 좋아 보인다.
 ▲강령군은 아니지.(웃음)
 — 한나라당 경선 당시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호남에 대한 소회는.
 ▲과거 한국 정치권에서는 영·호남을 구분해서 이익을 얻었다. 호남을 버리고 영남을 택하는가 하면 영남을 버리고 호남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2007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내가 영호남 구분없이 양쪽에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호남에 부족한 것이 뭔가를 알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
 — 호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면.
 ▲기업에 있을 때 호남에 일을 많이 했다. 원자력 발전소도 지었고 목포에 영산강 하구인 공사도 했다. (이 때 배석한 정두언 의원이 ‘도서관도 있었습니까?’라고 말하자) 그 때요. 광주 무등도서관도 지어줬어요. 다른 기업은 도서관을 지어주면서 기업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일이 진척되지 않았는데 나는 한번 만나서 이름을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서 지어준다고 했다. 도서관 준공식 때는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환영을 받았다.
 — 민자당 국회의원 할 때도 광주·목포·여수 사회단체 초청을 받아 강연을 10~20여 차례 했다. 여수에서 강연을 할 때는 노조와 사

호남은하 먼저 착공, 혹은 정부운하와 동시에 목포~광주가 1차, 2차는 광주~대전운하도

용자 모두를 모아 놓고 강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조와 사용자가 모두 찬성하는 강연자를 구하지 못했다가 나를 초청했다는 소리가 들었다. 이전부터 호남에서는 나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다.
 — “호남이 변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고 있다는 것인가.
 ▲호남은 산업화 혜택을 받지 못한 대신 민주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며 민주화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호남이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고 있다. 호남인이 실용·실리적인 입장에서 발전·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적 갈등을 뛰어 넘어 실용적 사고로 국정을 살펴야 하는 제 생각과 부합하는 것이다.
 —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놓고 당내에서 조차 반대도 많다. 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반도 운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이 후

보는 호남운하를 정부운하보다 먼저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아직도 유훼한다. 또 호남운하는 어떤 모습이고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당시 얼마나 반대가 많았나.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20년, 30년 앞당겼다. 21세기의 운하는 첨단 하이테크 기술의 결정체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부족함은 홍보 등 다각도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운하는 내륙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대운하 사업을 통해 내륙 도시들은 개방형 내항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호남운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산강운하는 정부운하보다 쉬운 공사다. 영산강 운하는 먼저 착공해도 되고 정부운하와 동시에 공사해도 된다. 같이 공사하더라도 정부운하보다 영산강 운하가 훨씬 빨리 끝나게 될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을 좋게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나주에 항구가 생기게 되면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관광 자원도 극대화될 수 있다. 운하 주변에 산적한 영산강고대 유적지도 당연히 함께 개발되어 관광 자원으로 변모할 것이다.
 —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이 후보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법률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을 폐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리고 F1 지원 관련 법률을 비롯해 서남권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들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
 ▲광주와 무안(전남을 의미)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관광개발도 광주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광양·여수·순천까지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는 교통망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목포~광주 운하가 그것이고 광주에서 공주를 거쳐 대전까지 가는 것이 2차다. 또 무엇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 집권하면 호남고속철도를 임기내에 완공하겠다.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인프라는 경제성을 따르기보다 선투자하는 것이다. 먼저 인프라가 되면 나중에 산업화가 된다. (단호하게) 재정이 어렵다면 차관을 통해서라도 인프라를 해야 한다.
 —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한 생각은.
 ▲농민만을 생각하면 한미FTA는 반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FTA에서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해를 보는 분야를 나눠서 대책이 필요하다. 개방을 해도 농업이 이길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씨가 귀국한다고 하는데.
 ▲(주지않이) 그동안 본인이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뭔가 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을 믿는다. 법원도 정치권과 달라서 신뢰한다.
 — 이 후보의 50%대 고공 지지율이 계속 되고 있다.
 ▲지지율이란 게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법이다. 저의 지지율 역시 그럴 수 있다. 다만 대다수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실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경제도 살리고 사회통합도 이루는 데 이명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높은 지지율 보내고 있다고 본다.
 지금 시대정신은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모두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민생이 정말 어렵다. 민생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수도·혁신도시 건설 일관성 있게 추진 지역 편견 가진적 없어... 호남 잘 살게 만들것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시행해온 정책은 이상적인 구호에 그쳤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되다 보니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역균형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착수한 사업은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진정한 지방 균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과거 서울시장 시절 호남 간부들을 인사에서 소외시켰다는 설이 있다. 또 호남소외로 대표되는 지역차별에 대한 소회는 어떤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일해 왔다. 기업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서울시장 시절에 지역차별 인사를 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산하 구청과 전남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경상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목포대학에서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전남의 핵심사업인 서남해안레저도시(J프로젝트)와 서남권개발사업,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생각은.
 ▲이미 법률과 예산을 투입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다. 이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2일 중앙 및 지역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5면에 계속)

산행안내

10월 23일 (화) 10:00 ~ 12:00

1. 산행코스: ...

2. 산행장소: ...

3. 산행대상: ...

4. 산행비용: ...

5. 산행준비: ...

6. 산행문의: ...

12월 15일 시행예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1.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2.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3.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4.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5.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6.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7.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8.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9.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10. 자격기본법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법률전문직업: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